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9,61-62)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James Tissot (1836-1902)

[제1독서] 1열왕 19,16나.19-21

[화답송] 시편 16(15),1-2ㄱ과 5.7-8.9-10.11
(◎ 5ㄱ 참조)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갈라 5,1.13-1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루카 9,51-62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163] 생명의 성체여
 - 파견성가: [202] 구세주의 성심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51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52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53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54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55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56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7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58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59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0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61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2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묵상

오늘 복음은 주님의 부르심과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알려 줍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고향인 갈릴래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접어드시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만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런 문맥에서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꺼냅니다. 우리 마음이 내키고 환경이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주님께서서는 결국 모든 이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으신 분이며, 스스로 목숨을 바치시는 그 순간까지 홀로 그 길을 걸으신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어려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하느님 나라 선포의 긴박함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제자들로서는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포기할 것인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묻힌 보물이나 진주의 비유에서처럼 주님과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서 어떤 것도 그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복음과 성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9,62)

어린 시절 시골에 가면 큰아버지께서 항상 쇠죽을 쓰고 쇠죽 끓이는 냄새가 코에 진동했으며 그것이 바로 시골의 향기였다. 소는 시골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가축이다. 쟁기를 달아 농사를 짓고, 달구지를 달아 물건을 나르기도 했으며, 송아지를 팔아 자식들의 학비로 쓰곤 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제임스 티소트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도 소나 나귀에 두 개의 긴 나무를 연결해서 나무 한쪽 끝에는 손잡이를 달고 맞은편에는 삽처럼 생긴 것을 매달아서 쟁기로 사용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멩에를 사용할 때는 대개 한 손을 사용했다. 따라서 무겁지 않은 쟁기를 힘을 주어 한 손으로 잡고, 밭갈이에 사용하는 동물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 나가도록 막대기를 들었기에 농부는 언제나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많아서 흙이 깊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튀어나온 돌에 부딪쳐서 쟁기가 망가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이 한눈을 파는 것은 허용될 수 없었다.

제임스 티소트(James Tissot, 1836-1902)가 1886-94년에 수채화로 그린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애 연작 중에서 루카복음 9장 59-62절을 배경으로 그렸는데, 이스라엘 농부들의 쟁기질을 비유로 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시자,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루카 9,59-61)

이것은 겨릿소를 부리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한 행동과 같다.

그는 부모와 작별인사를 하고,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나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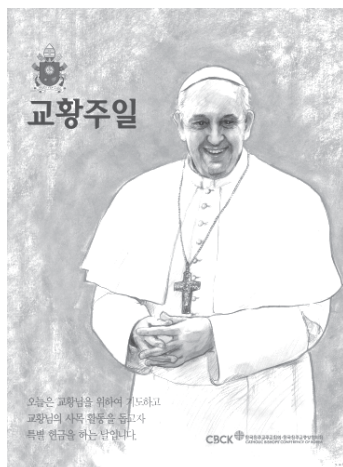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만일 뒤를 돌아보며 세상일을 걱정하다 보면 하늘나라의 발이랑은 비뚤어지고 구원의 도구인 쟁기는 망가지기 때문이다. 농부가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소는 묵묵히 밭을 갈고 있지만, 말 안 듣는 나귀는 농부처럼 뒤를 돌아본다. 그래서 밭은 뻘뻘 갈리고 있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교황 주일

‘교황 주일’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전 세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6월 29일)과 가까운 주일에 기념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주일을 맞아

- ▷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 직분을 수행하는 교황이 그 직분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 ▷ 교황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교황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을 봉헌합니다.



교황을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프란치스코)를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프란치스코)가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말은 양 무리와 함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알링톤 교구 다민족 미사 및 문화 행사



알링턴 교구의 다민족 미사가 지난 6월 21일(금) St. James 성당(Falls Church, Virginia)에서 마이클 버어빗지 주교님의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 미사에는 교구의 많은 신부님들이 참석해 주교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베트남, 필리핀, 한국, 가나, 브라질 등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성가대원과 교우들이 참석했다.

우리 본당에서도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님과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민족과 본당의 위상을 드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20명의 성가대원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다민족 합동 성가대에 참가하여 세계적 작곡가 찰스 구노가 우리 치명 성인들을 위해 작곡한 “무궁무진세에”를 노혜란(엘레나) 자매의 지휘 하에 우리말로 불렀다. 또한 입당 성가로 우리 성가 “즐기도 좋을시고”(416번)가 좋겠다는 주교님의 말씀에 전 다민족 성가대가 영어로 적은 한국 발음에 따라 불렀으며 김 마리아 자매를 포함한 네 명의 장구 반주로 흥겹게 장식했다. 영어로 된 화답송은 김창호(요안 비안네) 형제가 선창했다.

미사 후에는 각 민족의 고유 의상을 차려 입고 준비한 다양한 음악 및 무용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본당의 태권도 학생들이 시범을 보여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성모 회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마련한 불고기, 만두, 김치 등 한식은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주교님의 주목을 끌게 한 본당의 소개 부스 역시 사도회 총무 허진(세바스티안) 형제 및 총무팀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본 다민족 미사 및 미사 후 행사 준비를 위해 허진 사도회 회장을 비롯한 사도회 임원들의 노고가 컸으며, 이 행사를 위한 교구와의 연락은 교구 다민족 사목 위원인 김문자(마리나) 자매가 담당했다.

<사진 및 기사: 김문자 마리나>



Raphael News

Raphael Camp June 21-23, 2019



On June 21-23, 25 Raphael members got together at a secluded cabin near Harrisonburg, VA. The Raphael members enjoyed their time participating in team bonding activities and also preparing delicious meals for each other.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Raphael members to not only bond with each other but also with Father Kang. Father Kang came and blessed the rosaries the Raphael members made, gave them time for confession and celebrated mass together.

-Big JOHN KIM, Raphael President



”

At Raphael Camp we were able to grow closer together and bond with each other. We had many opportunities to grow closer to God. At Camp, we made different kinds of Rosary bracelets which helped us grow closer to God. The food there was also delicious which was a bonus.

-Little JOHN KIM

”

I loved how we were able to come out of our comfort zone and become closer to each other in a short span of time. The activities and games allowed us to strategize and work together as a team.

-HYUNSOO LIM

”

Raphael Camp was a great getaway to bond with our fellow members! One of the activities we did was making rosaries that were blessed by Kang shinbunim afterwards! It was a great time to relax from everyday life/stress!

-YULIS YOON



NEW MEMBERS ALWAYS WELCOMED!

Please join us for our weekly Raphael meeting in Hasang after 11:40 Mass.

John Kim, Raphael President (김현준 요한 라파엘 회장) (703) 201-0003

Susan Hong, Raphael Vice-President (홍명주 수산나 라파엘 부회장) (703) 955-1830

13TH SUNDAY in ORDINARY TIME June 30, 2019

Follow Jesus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asks some people to leave everything behind and follow Him. God is actually asking all of us to follow Him! Does that mean that we have to start wandering from town to town preaching? No! It means that we should try to become holy like

Jesus. God calls everyone to be holy. Some people become holy as priests or religious sisters or brothers, but those are not the only ways to become holy. Kids, married people and single people can all live out God's plan for holiness by doing His will every day.

You might think at first that being holy sounds boring, but it's not! Holiness means being like God. It means using the gifts God gave you to do good things. It means doing the right thing at the right time, and sometimes that means being a hero. That's definitely not boring!

<<https://www.thekidsbulletin.com>>

WORD SEARCH I will follow you

Find all the words from today's Gospel that are written in CAPITALS. Use the leftover letters to **fill in the blanks** on the right.

A N S W E R E D E N S
 N O W H E R E I W F I
 O H D E A D P F K A F
 T O P R O C L A I M I
 H M L E L F O T N I R
 E E F V O A W H G L S
 R F B E L R L E D Y T
 J O U R N E Y R O O N
 E X R O W W H I M U E
 S E Y J B E H I N D S
 U S E T S L E R E S T
 S S F O L L O W U S S



<바오로말 콘텐츠>

Fill in the blanks

ANNOUNCEMENT

1 SERVE 2019 Schedule

- **Where:**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Parish Hall
- **7/3(Wed.)** Crew Leader Training-**6:30pm-9pm**
- **7/6(Sat.)** High School Helper Training Day-**9am-4pm**
- **7/7(Sun.)** Parents & Campers Orientation-**6pm-8pm**
- **7/8-7/10(Mon.-Wed.)** SERVE Camp-**8am-8pm**
- **Ques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2 Sunday School Closed on 6/30 & 7/7

- **No Registration Services** for Sunday School

3 Coming Soon

- **Sunday School Registration Service Schedule**
- **CCD Summer Camp**

[Luke 9:57-62]

As they were proceeding on their JOURNEY, someone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And Jesus ANSWERED him, "FOXES have DEN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REST his head."

And to another he said, "FOLLOW me." But he replied, "Lord, let me go FIRST and bury my FATHER." But he answered HIM, "Let the dead BURY their DEAD.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say FAREWELL to my FAMILY at HOME." To him JESUS said, "No one who SE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to what was left BEHIND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1 유언 상속에 관한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6월 30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 강사 : 이 그레고리오 변호사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교육부장 (571)275-0691

2 루카회 월례회의(60대 형제, 자매)

- 일시 : 6월 30일(일) 오전 11:30(나눔터)
- 문의 : 강세원 바오로 (703)489-3938

3 리사이클(Recycle) 표어 공모 시상

- 6월 30일(일) 10시 미사 중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 1등 : 정성진 크리스티나
"무심코 버리면 오염 신경쓰고 버리면 자원"
- 2등 : 센터빌 3번 "환경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주님사랑"
- 3등 : 비엔나 1번 "하나뿐인 지구사랑 한 분이신 주님사랑"
- 문의 : 서경원 구역부 부회장 (571)236-7071

4 병자영성체

- 일시 : 7월 5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형제 (703)264-0050

5 성체강복

- 일시 : 매월 첫째 금요일(7월5일), 오후 7:30 미사 후
-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7월 구역봉사자 교육 없습니다

- 문의 :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7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7월 7일(일) 오후 1시(B-1)

8 청소년 사도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7일(일) 오후 1시(B-3,4)

9 주차장 이용 안내

- 주일학교 방학 기간(6월 23일 - 9월 1일)에는 교사 주차 공간을 모든 교우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성가 특강

- 일시 : 7월 14일(일) 오후 1:30 - 오후 3시(성당)
- 주제 : 성가 기도의 은혜
- 준비물 : 가톨릭 성가집
- 강사 : 이종철 배나시오 신부(수원교구)
- 대상 : 성가대와 성가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분들

11 동중부 꾸르실로 지도신부배 골프대회

- 일시 : 7월 14일(일) 오후 1시
- 장소 : Pleasant Valley Golf Club
- Green Fee : \$100(점심 포함)
- 문의 : 서경원 (571)236-7071

12 하상주보 광고비 납부

- 하상 주보 광고주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결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CYO(고등부) 여름 캠프 신청

- 신청 : 미사 후 (8시, 10시, 11:40), 친교실
- 등록비 : \$120 / 2명부터 \$80
- 일정 : 7월 25일(목) - 7월 28일(일)
- 대상 : 9학년 - 12학년
- 장소 : Prince William County Park
- 문의 : 이희준 아오스딩 교감(703)627-0799

교황 주일 2차 헌금

전 세계적으로 교황 주일에는 교황님의 사목활동을 돕고자 특별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전 세계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 당하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

보편 지향 : 온전한 정의
법을 집행하는 모든 이가 공정하게 일하여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의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 The Pope's Prayer Intentions •

July - Pray for Universal

That those who administer justice may work with integrity, and that the injustice which prevails in the world may not have the last word.



www.masstimes.org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30일(일)	연중 제13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루카회 (오전 11:30, 나눔터),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7월 1일(월)	연중 제1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하상 한국학교(오전 9:30 - 오후 3:30)
2일(화)	연중 제13주간	하상 한국학교, 성령 기도회(오후 8시, 하상관),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3일(수)	성 토마스 사도 축일	하상 한국학교,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바오로 소공동체모임(오후 8시)
4일(목)	연중 제13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사무실 휴무, 미국 독립기념일, 하상 한국학교 휴교
5일(금)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병자영성체, 하상 한국학교, 평일미사/성체강복(오후 7:30), 회장단회의(오후 8:20, 회의실)
6일(토)	연중 제13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파티마 첫 오음심신(오후 6:15, 성당)
7월 7일(일)	연중 제14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성당), 구역봉사자 모임 없음,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13주간 : 시편 73-81, 1코린 16**

KACM TV 하이라이트

- 7월 4일(목) 오후 5:00-6:00
- 7월 5일(금) 저녁 8:00-9:00
- 7월 7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10) : 라바날 델 카미노에서 드리는 저녁기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6월 23일(연중 제12주일)

주일헌금	\$7,457.00
교무금	\$15,010.00
교무금(크레딧카드)	\$6,100.00
특별헌금	\$1,250.00
2차헌금	\$0.00
합계	\$29,81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규(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젬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렐),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멜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헬(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효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경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Commercial 김준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